

<離騷>의 敘事巫歌의 특성에 관한 소고

宣釘奎*

<목 차>

1. 서언
2. <이소>의 서사무가 구조
 - (1) 서사무가와 <이소>의 서정구조의 비교
 - (2) 서사무가와 <이소>의 구성형식과 서술 양식의 비교
 - 1) 구성형식의 비교
 - 2) 서술양식의 비교
3. 결론

1. 序言

<離騷>는 초사를 대표하는 굴원의 작품이다. 중국 낭만주의 문학의 효시로 후세 시가에 미친 영향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소>의 창작배경에 관해서는 王逸이 추방당한 “굴원이 충정을 지키다가 참소를 입으매 시름마음이 너무도 산란하여 어디다 하소할 곳이 없어 <離騷經>을 지었다”¹⁾고 주장한 이래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두 <이소>를 장편의 정치서정시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소>는 모두 372구, 2,490자나 되는 자전형식의 장시이다.²⁾ 과연 이처럼 장편 거작이 단순하게 서정의 목적만을 위해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부 교수.

1) 屈原執履忠貞而被讒衰，憂心煩亂，不知所愬，乃作離騷經。(《楚辭章句》)

서 저작되었다고 보기에는 <이소>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체계적이다. 때문에 《文心彫龍·辨騷》에서도 <이소>에는 삼대 《詩經》의 정신을 본받았지만 《시경》 등의 경전과는 다른(異乎經傳) 대단히 과장되고 허망(夸誕)한 이야기, 즉 신화적 색채로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소>는 역사와 신화를 축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어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염원을 체계적으로 담은 시편이다. 때문에 흔히 호머의 일리아드(Iliad)와 오디세이(Odyssey)에 비유되기도 한다. 특히 “굴원이 없었으면 어찌 <이소>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³⁾라는 劉勰의 말처럼 <이소>는 屈原 개인의 재능, 그가 처한 시대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한데 어우러져 탄생된 것이다. 굴원은 楚國의 왕족의 신분으로 左徒를 역임하며 왕과 더불어 국사를 논의할 정도의 막강한 정치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좌도의 직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巫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⁴⁾ 또 전국시대 당시 다른 중원 국가와는 다르게 초국은 군왕 자신이 직접 군무의 수장의 역할을 자임할 정도로 전통적인 巫風이 여전히 치열하였음은 많은 역사 전적들이 언급하고 있다.

문학은 시대와 문화의 반영물이다. 때문에 초사의 저작에 초국의 무속문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구가>와 <초훈> 등의 굴원의 작품이 직접적으로 巫歌를 개작하였거나 무풍을 반영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초국의 무속문화는 그 기원을 殷商에 두고 있다. 초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제설이 분분하지만 동이족이 주류를 형성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초국 문화에 동이 문화의 요소가 대단히 풍부하게 내재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은상 역시 동이족이다. 우리 한민족 역시 동이족의 일원으로 인식되어

2) <이소>의 구수는 마지막 亂辭의 ‘已矣哉’를 독립된 구문으로 간주하였을 때에는 373구가 되고, 글자의 수도 판본에 따라서 2,468자, 2477자, 2478자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中國文學史編寫組, 《中國文學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87쪽.

3) 不有屈原, 豈見離騷。(《文心彫龍·辨騷》)

4) 藤野岩友의 《巫系文學論》를 비롯하여 李豐楙의 <服飾、服食與巫俗傳說 - 從巫俗觀點對楚辭的考察之一>, 김인호의 《초사와 무속》상당수 초사학자들이 굴원의 巫官論을 천명한 바 있음.

왔다. 우리 한민족과 은상의 가장 공통적인 문화요소는 원시 종교형태인 무속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초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동이 문화의 요소 역시 우리의 문화요소와 대단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초사의 대표적인 작품인 <이소>의 서사무가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초민족의 민족기원과 초문화의 동이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문화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소>와 서사무가의 서정구조와 서사내용 및 서사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이소>와 서사무가가 모두 무속을 배경으로 창작된 동일한 祭歌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한다.

2. <이소>의 서사무가 구조

(1) 서사무가와 <이소>의 서정구조의 비교

서사무가는 영웅 서사시 이전에 원시적인 서사시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서사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무가는 무속신화이며, 동시에 구비서사시로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기간 전승되어 왔고 지금도 전승이 진행되고 있는 구비문학이다.⁵⁾

서사무가는 신가, 무속신화라고도 하며, 흔히 본(本)풀이라고 한다. 심방(무당의 제주방언)들이 기구자의 요청에 따라 여러 신에게 주술 종교적 의례(굿)을 하는 가운데 신에게 기원 사항을 고해 올리는 과정의 축원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서사무가이기 때문이다.⁶⁾ 때문에 서사무가는 주로 신의 내력이

5) 서대석, 《韓國巫歌의 研究》(문학사상사, 1997), 19쪽.

6)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集文堂, 1992), 15쪽.

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풀이하는 노래이다. 일정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서술되고, 그 사건은 서로 인과적으로 서로 연계되어서 하나의 구성을 이룬다. 서사무가는 완전한 설화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되어 있는 무가라고 할 수 있다.⁷⁾ 서사무가가 구술되는 목적은 고향에서 무당이 신에게 인간의 기원을 전달할 때 주로 구송된다. 따라서 무가는 신성성을 전제로 한다. 무가의 전승의 주체가 무당이다. 무가는 전승담당층이 특수하다. 무당들만이 구송할 수 있는 것이다. 무가의 내용은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인간의 탐구와 이상세계 건설을 설계하는 내용이다.⁸⁾

<이소>는 모두 372구, 2490자나 되는 독백형식의 장편서정시이다.⁹⁾ 372구나 되는 장시를 굳이 서정시라고 말하는 것은 ‘<離騷>’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자신의 憂憤의 정을 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소>의 중요한 수사법이 수많은 구어와 허사의 사용이고, 이것이 <이소>로 하여금 산문적 특성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소>는 중국의 일반적인 서정시에서 보듯이 하나의 서정주제만을 가지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풀어낸 것이 아니다. <이소>는 크게 전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우선 “고양 임금의 후예이시여!(帝高陽之苗裔兮)”로부터 시작하여, 수신의 과정, 고상한 품성의 배양, 출중한 재간의 단련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상과 주장이 초국을 강성대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서술하다. 그런 다음 다시 “黨人”으로 대표되는 소인배들과의 갈등, 그 사이에서 자신의 충정을 몰라주는不明한 군주, 시류를 쫓아 절개를 버린 제자 또는 동료(衆芳蕪穢)들의 배신, 고립무원의 자신의 처지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신화재료를 빌려서 환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곧은 마음(婞直)과 시류의

7) 구영숙, 《서사무가의 구조분석》(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6쪽.

8) 홍태환, 《한국서사무가연구》(민속원, 2002), 3-4쪽.

9) <이소>의 구수는 마지막 난사(亂辭)의 ‘已矣哉’를 독립된 구문으로 간주하였을 때에는 373구가 되고, 글자의 수도 판본에 따라서 2,468자, 2477자, 2478자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中國文學史編寫組, 《中國文學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87쪽.

부적합, 중화에게 자신의 심정의 하소연, 여수의 떠나라는 권고, 천계여행, 지상으로의 복귀와 求女 여행의 실패, 다시 영분과 무함의 길짐에 따라 초국을 떠나 천계여행의 출발, 고향에 대한 미련, 그리고 亂曰로 전편을 총결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소>는 서정시이지만, 그 형식은 서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정의 전개과정이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 동일한 굴원의 작품인 “구장의 9편의 시가가 모두 굴원의 신세와 관련이 있음은 <이소>와 유사하면서도, 각 편의 편폭이 <이소>에 비해서 아주 짧으며, 언급한 사실이 생활 속의 구체적 판단이어서 <이소>와 같은 종합적 自敍가 아닌 점”¹⁰⁾을 보면 <이소>의 서사적 특질이 더욱 확실해 진다. 다시 말해서 이왕에 자신의 신세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을 서술한 구장의 9편의 시편이 존재하며, 그 편폭이 <이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는 것은 <이소>가 특별한 배경에서 저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굴원의 작품 중에서 <구장>이 신세를 직접 서정적으로 묘사한 것 외에, <천문>과 <초혼>은 모두 초나라의 무속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구가는 초의 무술제가를 모방하여 개작한 것이고, 그 편장 역시 각 편이 그다지 길지 않다. 천문의 편폭은 상당한 분량이지만 왕일의 설을 따르면 “초나라 선왕의 묘와 공경들의 사당에 그려진 천지, 산천, 신령들에 관한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모습과 고대의 성현들과 괴물들에 관한 일들을 보고서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문을 적은 것”¹¹⁾이고, <초혼>은 초나라의 무속의 招魂詞를 모방하여 지은 것이다.¹²⁾ 때문에 <이소> 역시 초나라 무속, 특히 무가의 체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되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사무가는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 서술의 중심을 이루는 설화적 특성’을 기본으로 ‘신에게 인간의 기원을 구송한다.’ 그리고 呪文型的 본풀이는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설화형식을 갖춘 본풀이들

10) 章培桓/駱玉明, 《中國文學史(上)》(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149쪽.

11) 見楚有先王之廟及公卿祠堂, 圖畫天地山川神靈, 琦瑋儷佹, 及古賢聖怪物行事。……仰見圖畫, 因書其壁, 何以問之。

12) 趙汝, 《장강을 떠도는 영혼 - 굴원평전》(서울: 신서원, 2000), 322년.

은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으로서의 직능을 관장하여 좌정할 때까지의 생활사를 서술한 전기적인 구성(기승전결)을 하고 있다.¹³⁾ “서사무가는 서사문학이다. 서사문학은 사건의 전개로 내용이 구성되며, 이들 사건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사구조란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고 전개되는 논리체계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건전개를 지배하는 숨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예를 들면 전국에 걸쳐 전승되는 서사무가인 <계석본풀이(당금애기)>는 잉태와 출산을 중심으로 사건전개가 이루어지고,¹⁵⁾ 전국적으로 가장 포퓰러한 유형으로 완벽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바리공주 역시 부모의 기아와 버림받은 바리공주의 신력획득과 부모소생을 중심으로 사건전개가 이루어진다.¹⁶⁾ 특히 바리공주는 모두 엄격한 인과관계로 결구되어 있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점복(占卜)이라는 신앙적 요소가 膠着劑 역할을 한다. 기아와 복귀(영웅의 탄생과 시련 그리고 영광으로의 회귀), 고귀한 혈통, 신기한 태몽, 일곱 째 공주로 출생, 버림을 받음, 양육자를 만남, 부모가 병이 들,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여 부모를 회생, 무신이 되는 것으로 서사가 전개된다.¹⁷⁾

<이소>의 저작 동기는 두 차례 추방을 당하고 저술된 것으로, ‘현실에서 부딪친 갖가지 불공정한 처사와 억울함을 신에게 하소연’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소>에는 많은 서사적 성분이 내포되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시인의 일생의 사상과 행위를 여실하게 살필 수 있어서, <이소>는 시인의 자서전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¹⁸⁾ <이소>의 사건전개는 현실과 이상의 충돌이다. 다시 말하면 미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굴원의 이상과 그 이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구조이다. 이상실현의 갈망은 수련의 과정 즉 향초로 자신을 가꾸는 부분이고, 현실의 벽은 간신배들에 대한 원망, 향초의 조락(凋落), 무능한 회왕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현실

13) 양영태: http://www.ormstory.kr/zbxe/?document_srl=3630

14) 서대석, 앞의 책, 20, 146쪽.

15) 서대석, 앞의 책, 146쪽.

16) 서대석, 앞의 책, 200, 220쪽.

17) 서대석, 앞의 책, 241쪽.

18)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中國文學史編寫組, 앞의 책, 87쪽.

에 벽에 부딪친 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것, 그리고 천계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세계를 찾아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실과 천상의 사이에 여수의 권고와 영분과 무함의 점복이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이소>와 바리공주의 사건전개는 자전적 서술이라는 특징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서사무가는 서사적 특징이 훨씬 강하다는 것뿐이다. 또한 서사무가가 반드시 '무격에 의해서만 구송'된다는 점은 굴원의 초나라의 '대무사이거나 무축들의 영수'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 서사무가가 '인간의 탐구와 이상세계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은 <이소>가 美政, 즉 정치적 이상에 대한 집착을 근간으로 저술되었다는 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특히 바리공주의 '서천서역국', 원천강본풀이의 '원천강', 이공본풀이의 '서천꽃밭', 칠성풀이의 '천하궁', 제석본풀이의 '황금산'과 같이 양상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서사무가가 공통적으로 타계여행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소>의 주인공 역시 천계여행을 통해서 이상의 여성을 찾아 헤매고, 마침내 곤륜산이라는 낙원을 향한 여정으로 사건의 전개가 종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서사무가와 <이소>의 구성형식과 서술양식의 비교

1) 구성형식의 비교

서사무가에는 일정한 공통된 형식이 있다. 이 형식은 서사무가가 무격이 무의를 행할 때 그들의 직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래하는 무가이고 동시에 신화라는 데서 형성된 것이다. 무격이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청자는 인간보다도 신들이다. 신들을 상대로 하여 신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다. 인간이 듣고 즐거워하는 이야기는 신도 듣고 즐거워한다고 믿었기 때

문이다. 인간이 듣고서 기뻐하지 못한다면 신들 역시 감동시킬 수 없다. 어차피 신들의 세계는 인간세계의 투영이자, 신은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던 신들을 기쁘게 하던 무언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여 내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어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開始의 奏言이다. 이것은 본풀이를 개시하겠다고 신격에게 예고하는 인사와 같은 것이다. 둘째는 발단의 형식이고, 셋째는 終結의 주언이다. 서사무가는 개시-발단-종결의 순서를 거쳐 이루어지고, 이러한 형식은 심방들이 장황한 서사무가를 흐트러짐이 없이 노래해 나갈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¹⁹⁾

이상의 서사무가의 구성형식을 기준으로 <이소>를 살펴본다면 우선적으로 <이소>의 서술내용에 따른 분단의 문제부터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소>의 서술체제가 서사무가의 주용 형식인 개시와 발단 그리고 종결과 부합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소>의 서사무가적 특성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소>의 서술내용에 따른 분단은 청대 王邦采가 《離騷匯訂》에서 크게 3단락으로 분단한 이래로 많은 논란이 지속되었다.²⁰⁾ 그러나 대체로 이들의 분단의 기준이나 원칙은 모두가 <이소>를 단순한 서정시가라는 전제하에서 주로 서술내용에 따른 분단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소>에는 왕방채의 말대로 중복되는 의미를 가진 구절이 다수 출현하여 관점에 따라서 크게 다른 분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도 인정된다. 오늘날 대체로 인정하는 분단은 크게 3개 단락 작게는 8개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19) 玄容駿, 앞의 책, 48-51쪽.

20) 그는 “帝高陽之苗裔兮，朕皇考曰伯庸。”부터 “雖體解吾猶未變兮，豈餘心之可懲。”까지를 1단, “女嬃之嬋媛兮，申申其詈予。”부터 “懷朕情而不發兮，餘焉能忍與此終古。”까지를 2단, “索藟茅以筮筮兮，命靈氛爲餘占之。”부터 마지막 “既莫足與爲美政兮，吾將從彭咸之所居。”까지를 3단으로 나누었다. 그는 <이소>의 문장의 기세는 1단락에서 이미 완결되고, 후반 2단락은 실제로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았다.

- ① 가세, 출생과 포부에 대한 서술
- ② 정치적 박해
- ③ 박해를 무릅쓰고 이상을 견지하겠다는 결심
- ④ 여수의 권유와 중화에게 정치이상을 진술
- ⑤ 하늘로 올라가 제1차 천계여행을 통한 구녀과정
- ⑥ 영분과 무함에게 점을 치는 과정
- ⑦ 초국을 떠나 2차 천계여행을 시작
- ⑧ 난사

상기한 <이소>의 핵심적인 서술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난사를 제외하고 ①에서 ④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현실정치에서의 갈등과 그에 따른 자신의 울분을 서술한 부분이 된다. 다음 ⑤부터 ⑦까지는 주로 1,2차의 천계여행을 중심으로 환상세계에 관한 서술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⑧난사는 미정에 대한 자신의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므로 팽함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전문에 대한 종결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소>분단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①가세, 출생과 포부에 대한 서술에 관한 부분을 크게 나눈 1단락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이 부분을 지금까지의 의미 분석대로 굴원의 자랑스러운 가세와 신비한 출생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의 긍지를 설명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1단락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풀이와 다른 의미를 가진 단락이라면 <이소> 분단의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역대로 王逸 이래로 오늘날 까지 <이소>의 서두 부분은 그 각각의 字彙들이 가지고 있는 본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대체로 굴원 자신의 자랑스러운 가세와 내력,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지고 있는 신성성을 말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그다지 큰 이견이 없었다.

나는 고제 顓頊 임금의 후손으로,	帝高陽之苗裔兮,
내 돌아가신 선친은 伯庸이라 하였네.	朕皇考曰伯庸。
경인년(庚寅年) 寅의 달,	攝提貞於孟陬兮,
寅의 날에 나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였노라.	惟庚寅吾以降。
선친께서 나의 태어난 기상을 헤아리시어,	皇覽揆余初度兮,
점을 쳐서 나에게 아름다운 이름 점지해 주셨네.	肇錫余以嘉名。
正則이라 이름 지어 주시고,	名余曰正則兮,
靈均이라는 자를 붙여 주셨네.	字余曰靈均。

그러나 과상보가 제기한 바에 따르면 <이소>의 서두 부분은 초나라의 선조 祝融의 강신을 칭하는 전형적인 降神辭²¹⁾이며, <이소> 자체가 굴원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민간제가의 구조를 모방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그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皇考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굴원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태조를 칭하는 것이며, 백용은 바로 초국의 시조로 祝融을 지냈던 重黎이다. 三寅 역시 굴원의 생년, 생월, 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시조 중려 重黎 축융이 제곡에 의해 죽임을 당한 忌日임과 동시에, 그의 동생 吳回가 제2의 축융으로 임명된 날이기도 하다. 初度 역시 시절이나 기상 또는 풍도가 아니라, 바로 제사를 지내기 전의 점복이다. 「가명(嘉名)」의 「명」 역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표의부호로서 그 의미는 “상서롭고 만족스러운 점복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며, 간단하게 吉占이나 吉故와 같은 의미이다. 다음에 나오는 名은 銘과 같은 의미이자 다음에 나오는 字와도 통용되는 글자이다. 여기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글자를 사용했을 뿐이다. 그 의미는 貞卜의 결과로 “正則”과 “靈均”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칙」과 「영균」은 신령께서 굴원이 받은 불공정한 대우를 공평하게 판결하였다는 의미이다.²²⁾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이소>의 서두 부분을 풀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21) 過常寶, 《楚辭與原始宗教》(北京: 東方出版社, 1997), 104쪽.

22) 過常寶, 앞의 책, 94-108쪽.

고양 임금의 후손이신 나의 조상 축융이시여!
경인년, 경인월, 경인일 당신의 기일을 맞이하여 강신하시옵소서.
제사에 앞서 점을 쳐보니, 상서롭고 만족스런 점괘를 주셨으니,
제가 받은 불공정한 대우를 올바르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과상보의 주장대로 강신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의 단락으로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강신사를 제외한 기존의 1, 2단락의 주요 내용은 주로 시인의 '현실속의 투쟁과 실패의 과정'과 '이상세계에 대한 모색과 울분'에 서술로 그것은 하나의 단락으로 간주하여도 그다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이상이 현실 속에서는 구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이상세계에 기탁하고자 하는 희망을 구술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난사에서는 자신의 궁극적인 이상인 '美政'의 실현이 실패함에 따라 이제 팽함의 거소로 회귀하겠다는 의미의 총결이다. 이러한 <이소>의 단락 구분은 우리나라 서사무가의 개시의 주언과 발단 그리고 종결의 주언으로 마감되는 형식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중국 고대의 제가의 형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없다. 대부분 선진의 문헌에 대단히 단편적인 구절만이 산재해 있을 따름이다. 다만 무사의 무술의식이나 제사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변천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 어떤 문화형태보다도 세습적 전승능력이 강하고, 전통의 유지와 보존이 월등하다는 점에서 오늘날 연행되고 있는 무술의식을 차감한다면 <이소>가 서사무가의 형식을 가졌다는 논리는 그다지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서술양식의 비교

한국 무가의 서술양식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화의 구송이므로 문체가 율문(narrative verse)이다. 그것은 장구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니 만큼 필연적인 것이다. 둘째, 문장이 모두 현재형으로 서술된다. 이는 신의 내력을 염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의 현실적 現顯을 확신하

기 때문이다. 셋째, 사건의 전개가 대부분 등장인물의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넷째, 표현이 상투적이고, 어구들이 일률적이다. 다섯째, 반복, 대구, 과장 등의 수사법을 사용한다.²³⁾ 이러한 서사무가의 특징을 <이소>의 서술형식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율문의 문체

서사무가의 문체가 율문이라고 한다면 <이소>역시 다르지 않다. <이소>는 서사적 성분을 가진 장편서정시이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선진의 제자산문의 <이소>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소>가 산문시대의 시가 형태 또는 선진산문과 초인의 어법이 서로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굴원은 산문의 필법을 운용하여 시를 썼기 때문에 시가 산문화 되었고, 또 시의 필법으로 산문을 썼기 때문에 산문을 시화시켰다. 이 때문에 <이소>에는 시의 성분도 있고, 또 산문의 성분도 있다.²⁴⁾ 특히 <이소>의 시율은 4언체가 중심이 된 시경과 전혀 다른 6언체의 독창적인 시율미를 가지고 있다. 소위 남방의 구가체이다. 구가는 바로 제가이다. 장단이 일정하지 않고, 압운도 자유롭다. 이는 서사무가의 문체가 율문이라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또한 《漢書·王褒傳》에 “九江의 被公이 초사를 송독할 수 있었다”²⁵⁾ 하였고, 《隋書·經籍志》에는 “釋道騫이 音韻淸切한 楚聲을 지을 수 있었다”²⁶⁾ 고 하였다. 초사가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가가 이왕에 민간의 제가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어서 시, 악, 무가 삼위일체가 된 작품임을 보면 이는 쉽게 이해된다. <이소> 역시 음악 가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離騷’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중설이 분분하나, 유국은은 초국의 악장 중의 하나인《勞商》의 轉音이라고 보았다. 구가와 마

23) 玄容駿, 앞의 책, 51-55쪽, 양영태, http://www.ormstory.kr/zbxe/?document_srl=36312003.02.2522:34:02

24) 廖序東, 《楚辭語法研究》(北京: 語文出版社, 1995), 83쪽.

25) 徵能爲楚辭, 九江被公召見誦讀. (《漢書·王褒傳》)

26) 能作楚聲, 音韻淸切. (《隋書·經籍志》)

찬가지로 고대 악가를 편명으로 삼았다고 본 것이다. 또 《구장》의 ‘章’은 보기에 악가의 편장과 관계가 없지 않아 보이며, 특히 <이소>를 위시하여 <涉江>, <哀郢>, <抽思>, <悲回風> 그리고 <招魂>에 모두 亂辭가 있는데, 이 ‘난사’를 한 편의 시가의 요지를 마지막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난사’는 악장의 尾聲, 즉 舞曲의 終章임이 분명하다.²⁷⁾

이처럼 서사무가가 장구의 가락에 맞추어 담화를 구송하기 위한 것으로 음악을 바탕으로 한 서사체이기 때문에 그 문체가 율문이라는 점은 <이소>가 음악을 바탕으로 송독되었고, 그 문체가 선진 산문의 형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나. 현재형의 서술

서사무가가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것은 신의 내력과 현실적 현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굴원이 두 차례에 걸쳐 추방을 당한 후 자신의 울분을 풀어낸 것이 ‘<이소>’이며, 때문에 發憤抒情의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그렇다면 모든 문장이 과거형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부 “그 옛날 세 분 현군의 덕행 완미하여서, 그분들 주위에 수많은 현신들 함께했어라. 산초와 계수나무도 함께 있었지, 어찌 오로지 혜초와 구릿대만 엮어서 장식하였겠나!”²⁸⁾ 부터 “권세와 재물을 찾아 미친 듯 달려가지만, 이는 내 마음에 급한 것이 아니라네.”²⁹⁾까지, 夏·殷·周 삼대의 성왕, 堯와 舜, 桀과 紂의 성패를 회고한 다음, 자신의 충정을 몰라주는 임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이 가꾼 향초들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부분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같이 현재형으로 서술이 진행된다.

27) 黃鳳顯. 《屈辭體研究》(湖南人民出版社, 長沙, 1997), 123쪽, 徐嘉瑞. <楚辭亂曰解>《文學遺產》增刊本, (香港: 聯合出版社), 74-79쪽.
28) 昔三後之純粹兮, 固衆芳之所在. 雜申椒與菌桂兮, 豈維紉夫蕙芷?
29) 忽馳騫以追逐兮, 非餘心之所急.

노년이 점점 다가올 터인데,
아름다운 이름 세우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이라.

老冉冉其將至兮，
恐脩名之不立。

내 비록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팽함이 남기신 유훈을 따라서 살고 싶어라.

雖不周於今之人兮，
願依彭咸之遺則。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길게 탄식하네,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 슬퍼서.

長太息以掩涕兮，
哀民生之多艱。

애당초 자세하게 길을 살피지 않는 것이 후회되어,
우두커니 서서 주저하며 나가지 못하고 돌아가려 하노라.
수레를 돌려 되돌아가려하네,
잘못 든 길 더 멀어지기 전에.

悔相道之不察兮，
延佇乎吾將反。
回朕車以復路兮，
及行迷之未遠。

특히 급(及)과 장(將)은 <이소> 주인공의 정서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어휘이다. '급'은 모두 6차례 등장하는데, "忽奔走以先後兮, 及前王之踵武。"와 같이 주로 촉박하고 화급한 정서를, '장'은 모두 14차례나 등장하는데 "老冉冉其將至兮, 恐脩名之不立。"와 같이 미래의 예감이나 결행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주를 이룬다.³⁰⁾ 이는 <이소>의 전체 서술이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형식이 아니라,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감회나 미래의 일에 대한 예감이나 예지를 설명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여수와와 대화, 영분과 무함에게 점치는 부분, 전설의 임금 중화(순)를 향한 진사를 비롯하여 제1차 천계 여행의 신녀들을 향한 구애 여행 그리고 마침내 초국을 떠나는 제2차 천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난사의 "더불어 아름다운 정치를 논한 사람이 없으니, 나 이제 팽함이 계신 곳으로 쫓아가리라"까지 마치 시인 자신의 면전에 대화의 상대를 두고 말하듯이 서술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화를 비롯한 세 명의 신녀들이 전설의 임금이나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시인과 똑같이 살아 숨 쉬는 인물로 현현되고 있다.

30) 李豐懋, <服飾, 服食與巫俗傳說>《楚辭研究論文集》(臺北: 學海出版社, 1981), 545쪽.

다. 대화체 형식

서사무가는 사건의 전개를 대부분 등장인물의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시킨다. 인물이나 사건의 경과 그리고 배경 등의 환경이 전체의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나타난다. 대화 위주의 서술 전개는 희곡화의 요인이 된다.³¹⁾ <이소> 역시 먼저 자신의 가세와 품성, 그리고 수련의 과정을 시작으로 역사의 흥망성쇠, 인재 양성의 과정, 현실정치에서의 갈등과 절망을 마치 보이지 않은 어떤 무형의 존재를 향해 읊소하듯이 주인공의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는 세 명의 여인을 찾아 헤매는 천계여정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女媧와의 대화, 중화를 향한 진정, 다시 영분과의 대화, 무함과의 대화로 진행되고 있다. 이점은 '사건의 전개가 대부분 등장인물의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서사무가의 서술형식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

라. 상투적인 표현과 일률적인 어구

한국 서사무가의 '상투적인 표현과 일률적인 어구'는 그것이 반주에 맞추어 진행되는 구비서사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오랜 세월을 거쳐 전승되면서 주로 민간을 대상으로 무속이 신봉된데 따른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무속은 가장 오랜 기원을 가진 민족의 신앙사상이다.³²⁾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 등의 전래로 그 본래의 사회 종교적 지위를 점차 상실하였고, 마침내 미신으로 치부되어 배척되기까지 하였다. 때문에 무업에 종사하는 무격 역시 특별한 경

31) 玄容駿, 앞의 책, 53쪽.

32) 우리나라의 상고대 왕권은 무권(巫權)을 겸전(兼全)하고 있었다. 김열규, 2004 앞의 책, 22쪽. 무속의 기원은 환웅과 단군왕검으로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까지 대단히 성행하였다. 신라의 차차웅(次次雄)을 자충(慈充)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의 방언이고, 고구려에는 사무(師巫)의 칭호가 있었다. 마한의 천군(天君), 예(濊)의 무천(舞天), 가락(駕洛)의 계락(禊洛), 백제의 소도(蘇塗),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은 모두 단군 신교의 유휘파 전래된 풍속이 아닌 것이 없으며, 이것들은 바로 무축이 신령을 받드는 일이었다. 조선 왕조에서도 성숙청(星宿廳)에 국무(國巫)를 설치하였고, 활인서(活人署)에 무격을 설치할 정도로 무속의 명맥이 여전히 유지되었다. 李能和, 《朝鮮巫俗考》(啓明俱樂部, 1927), 1-11쪽. 그러나 "유교라는 국가 종교에 밀리고 또한 당대에 막강한 세력을 민중 사이에서 누리고 있던 불교에 밀리어서 사머니즘이 기댈 입지가 현저하게 국축(蹙縮)되었다." 김열규, 2004 앞의 책, 30쪽.

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고도의 문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해 구송되는 서사무가의 어투나 표현이 자연히 세련되거나 복잡한 구성을 가질 수 없었다. “조선조 궁중에서 연출되던 儼戲(나희)의 일종인 楊州 山臺戲의 舞伎가 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粗野하였던 것”³³⁾이 그 좋은 예이다. 한 마디로 한국의 서사무가는 무속이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외래 종교에 밀리어 쇠퇴한 이후 주로 하층 민간을 대상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상투적 표현과 일률적 어구 등의 조야한 표현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소>에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구절이 중복으로 출현하고 있다.

紛總總其離合兮, 斑陸離其上下。
紛總總其離合兮, 忽緯繡其難遷。

心猶豫而狐疑兮, 欲自適而不可。
欲從靈氛之吉占兮, 心猶豫而狐疑。

世溷濁而不分兮, 好蔽美而嫉妒。
世溷濁而嫉賢兮, 好蔽美而稱惡。

苟餘情其信娉以練要兮, 長顛頷亦何傷?
不吾知其亦已兮, 苟余情其信芳。

佩繽紛其繁飾兮, 芳菲菲其彌章。
芳菲菲而難虧兮, 芬至今猶未沫。

동일한 구절이 중복으로 출현하는 것은 반복의 수사적 기능과는 다르다. 어휘의 반복이 정감의 고조나 기세의 고양을 위한 것이지만, 설사 어떤 시구가 동일한 시편에서 두 차례 중복하여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의 작용은 만들어 낼 수 없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에는 이처럼 많은 구절이 반복

33) 李能和, 앞의 책, 1쪽.

34) 黃鳳顯, 앞의 책, 99쪽.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구비문학이 기록문학으로 발전하는 과도기 작품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호메로스(Homeros)의 서사시 일리아드(Iliad)와 오디세이(odyssey)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한 편의 시편에 중복 출현하고 있다. 문학이 생성되는 초기 역사 단계의 계승과 창조의 과정에서는 왕왕 이미 유행하였던 어떤 개념을 표현하거나, 어떤 형상을 묘사하는 사조나 구절이 풍부한 함의를 갖춘 어휘로 간주되어서 다시 사용된다.³⁵⁾

구비문학의 범주 속에 설화나 민요 그리고 무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한의 왕일이나 남송의 주희가 말한 대로 <구가>는 沅湘 지역의 鄙陋하고 鄙俚한 무가를 윤색 가공한 작품이다.³⁶⁾ 구가의 저본이 되었던 원상 지역의 민간에 원래 존재하던 무가가 고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사적 체계를 살펴볼 수 없어서 굴원이 어떤 부분을 취사선택하였는지 규명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소>역시 동일한 작가인 굴원의 작품으로 그것이 무속의 훈도 속에서 저작된 작품이다. 서사무가는 제의에서 무당에 의해 가송되는 구비서사시이고, 구비문학이 구연되는 현장에서 존재하는 문학이다. 또한 “시베리아 샤먼이 입무식 동안의 탈혼상태에서 즉흥적인 시작을 하고, 입신하여 있는 상태가 바로 창작하고 詩作하는 과정 그 자체”³⁷⁾라는 것을 생각하면, 구비문학으로서의 무가에 동일한 구절이 중복하여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이소>의 중복되는 구절의 출현도 무가의 영향 아래 자연스럽게 연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반복, 대구, 과장의 수사법

한국의 서사무가에 주로 사용되는 반복, 대구, 과장의 수사법은 <이소>에

35) 湯炳正, 《屈賦新探》(齊南: 齊魯書社, 1984), 354-355쪽.
36) 九歌者, 屈原之所作也。昔楚國南郢之邑, 沅湘之間, 其俗信鬼而好祠。其祠必作歌樂鼓舞以樂諸神。屈原放逐竄伏其域, 懷憂苦毒, 愁思沸鬱。出見俗人祭祀之禮, 歌舞之樂, 其詞鄙陋。因爲作九歌之曲。(王逸,《楚辭章句》九歌序) 九歌者, 屈原之所作也。昔楚國南郢之邑, 沅湘之間, 其俗信鬼而好祀。其祀必使巫覡作樂, 歌舞以娛神。蠻荆陋俗, 詞既鄙俚, 而其陰陽人鬼之間, 又或不能無褻慢淫荒之雜。原既放逐, 見而感之, 故頗爲更正其詞, 去其泰甚, 而又因彼事神之心, 以寄吾忠君愛國眷戀不忘之意。(朱熹,《楚辭集注》九歌序)
37) 金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一潮閣, 1982), 3쪽

서도 상견된다. 먼저 과장의 수사법을 보면 수사를 이용하여 더욱더 생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나는 이왕에 아홉 이랑의 난초를 심었고, 또 백무의 혜초도 가꾸었네.	余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
---	----------------------

내 진심으로 좋아하기만 한다면, 설사 죽고 또 죽어도 그 무엇을 후회하리요.	亦余心之所善兮 雖九死其猶未悔。
---	---------------------

수많은 나의 수레 한데 모여 줄을 서게 하여, 옥 바퀴 가지런히 나란히 달려가네. 여덟 마리 용을 몰아 꿈틀꿈틀 나아가네.	屯餘車其千乘兮, 齊玉軛而並馳。 駕八龍之婉婉兮。
--	---------------------------------

九畹과 九死의 「九」나, 百畝의 「百」, 그리고 千乘의 「千」은 물론 八龍의 「八」은 모두 실수가 아니라 무한의 의미로 사용된 허수이다. 인재양성에 기울인 노력과 변치 않는 초심,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천계 여행을 떠나는 환희에 찬 심정들이 허수로 인해서 더욱 절실하고 생생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대구의 이용이다.

대구의 수사법은 언어를 내용과 형식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내용의 대응은 의미의 대비뿐만 아니라 의미를 서로 연계시켜서 의미와 이미지에서 연상 작용을 일으키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어의 함의가 더욱 풍부해지고 농축된다. “형식의 대칭은 언어를 더욱 정제시켜서 운율을 풍부하게 한다. 시구의 리듬을 더욱더 골고루 조화를 이루게 하여 의미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여 일반구와 서로 배합이 되면 정감의 발설이나 사상의 표현에 더욱 변화가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굴원의 <이소>에도 이러한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난다.”³⁸⁾

廖序東이 《楚辭語法研究》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³⁹⁾ <이소>의 372구

38) 廖序東, 앞의 책, 97쪽.

39) 廖序東, 앞의 책, 97-99쪽.

중에서 모두 56구가 대구이다. 이들 가운데 상하 구문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이 모두 20조이다.⁴⁰⁾ 또 두 조의 상하 구문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이 4조이고,⁴¹⁾ 또 하나의 구 안에서 앞뒤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문이 두 개이며,⁴²⁾ 말 이을 而자의 전후가 모두 동사 목적어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어의가 병렬되어 있거나, 정반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그리고 전후로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두 개의 주술구조가 서로 상대되어 있는 것 등이 모두 여섯 구문⁴³⁾이 있다.

다음은 동일한 어휘의 반복적 사용이나, 중복 출현의 문제이다. 굴원의 작품 중에서 초혼은 “혼이여 돌아오라!(魂兮歸來!)”라는 구절이 12번 반복되고, “돌아오라(歸來)”는 구절이 모두 6번 반복된다. 그러나 <이소>에는 우리의 서사무가에서와 같은 동일한 어휘의 반복은 없다. 대신 인칭 대명사 余는 모두 24구, 吾는 25구에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372구문⁴⁴⁾ 중에서 兮·之·其·以·而·於·乎·夫·此·與 등의 허사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의 허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⁵⁾ 특히 대다수 허자가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끝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다수 구문이 형식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固/時俗/之/工巧兮,

40) ① 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② 朝搴阨之木蘭兮, 夕攬洲之宿莽。③ 朝飲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④ 高餘冠之岌岌兮, 長餘佩之陸離。⑤ 揚雲霓之旻藹兮, 鳴玉鸞之啾啾。⑥ 駕八龍之婉婉兮, 載雲旗之委蛇。⑦ 朝發軔於蒼梧兮, 夕余至乎縣圃。⑧ 夕歸次於窮石兮, 朝濯髮乎洧盤。⑨ 麾蛟龍使梁津兮, 詔西皇使涉予。⑩ 前望舒使先驅兮, 後飛廉使奔屬。⑪ 名余曰正則兮, 字余曰靈均。⑫ 佩繽紛其繁飾兮, 芳菲菲其彌章。⑬ 百神翳其備降兮, 九疑繽其並迎。⑭ 蘭芷變而不芳兮, 荃蕙化而爲茅。⑮ 紛總總其離合兮, 斑陸離其上下。⑯ 折瓊枝以爲羞兮, 精瓊爨以爲糧。⑰ 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⑱ 夫孰非義而可用兮, 孰非善而可服。⑲ 余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⑳ 畦留夷與揭車兮, 雜杜衡與芳芷。

41) ① 擘木根以結蔭兮, 貫薜荔之落蕊。② 矯菌桂以紉蕙兮, 索胡繩之纒纒。③ 呂望之鼓刀兮, 遭周文而得舉。④ 甯戚之謳歌兮, 齊桓聞以該輔。

42) ① 路幽昧以險隘。② 忽馳騫以追逐兮

43) ① 屈心而抑志兮, 忍尤而攘詬。② 瞻前而顧後兮 ③ 不撫壯而棄穢兮 ④ 不量鑿而正枘兮 ⑤ 好蔽美而稱惡。⑥ 僕夫悲餘馬懷兮

44) 난사 “已矣哉”를 독립된 한 구로 보았을 때는 모두 373구이다.

45) 兮(兮)자는 모두 187구, 지(之)자는 98구, 기(其)자는 41구, 이(以)자는 77구, 이(而)자는 71구, 어(於)자는 9구, 호(乎)자는 17구, 부(夫)자는 20구, 차(此)자는 12구, 여(與)자는 8구에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面/規矩/而/改錯。背/繩墨/以/迫曲兮，竟/周容/以/爲度。” “恐/年歲/之/不五與。” “雖/不周/於/今之人兮。” “吾獨/窮困/乎/此時也”。“謂/幽蘭/其/不可佩。” 와 같은 용법이다. 이는 <이소>구법의 중요한 특징으로 굴원이 초국의 민가의 형식을 채용하여 <이소>를 창작하였기 때문이다. 그 효능은 長短과 短長の 가락이 반복되게 함으로써 2,468자나 되는 장시를 음창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의 통일된 리듬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⁴⁶⁾ 아울러 대다수 구문이 형식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편 서정시가 거듭 반복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소>는 모두 186개의 운자韻字를 두 구에 하나씩 사용하고 있다.⁴⁷⁾ 押韻은 동일한 운모의 글자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소리가 운자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 나가듯이 낭송이나 詠唱을 할 때에 낭랑하고 조화로운 느낌이 반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시문에서 동일한 어휘의 반복의 수사 작용은 어의, 음율 및 구조에 있어서 전체의 조절이나 강화의 작용을 한다. 나아가 한 시구의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일종의 회환왕복의 형식을 조성하게 되고, 또 동일한 시편에서의 반복은 그 시체의 '기세'를 창조한다. <이소>는 다량의 허자의 사용과 압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서사무가가 동일한 어휘의 반복을 통하여 만들어 내는 정감의 고조를 배가시키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양국 언어의 근본적 차이에 따른 다른 수사용법이나 그 목적과 효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소>는 대무 굴원에 의해 저작된 것이다. 굴원은 초국의 왕족으로 좌도

46) 廖序東, 앞의 책, 73쪽.

47) 廖序東, 앞의 책, 66-72쪽.

의 벼슬을 지낸 巫官이다. 《漢書·地理志》에서 “초 지역에서는 무격과 귀신을 신봉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사를 지냈다.”⁴⁸⁾고 하였고, 《呂氏春秋·治樂編》에서는 “초나라의 국세가 쇠퇴하자 巫音이 만들어졌다”⁴⁹⁾고 하였다. ‘무음’이란 무격들이 신령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樂歌를 말한다. 초사가 무관문화의 최고표현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소>나 <구가> <구장>은 중국 서정시의 최고봉이다. 후세 문인들이 본받으려 하였으니 모두 흉내에만 그치고 말았다. 이는 굴원이 巫學과 道學을 겸비한 최고의 무관인 굴원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이다.”⁵⁰⁾ 자연스럽게 그 표현은 초현실적인 낭만의 세계가 연출되었고, 어구도 무사들의 진유물인 향초와 미인, 그리고 미옥을 이용한 상징과 은유의 수법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사무가(본풀이) 역시 줄거리를 갖춘 서사 양식에 속하는 무가이며, 무속의식에서 구연되는 무속신화이다. <이소> 역시 굴원의 자전적 정치 서정시로, 비록 서정시이긴 하지만 이상 인물과 이상 세계를 찾아 헤매는 줄거리를 갖춘 서사 양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에서 <이소>의 서사무가적 특징에 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이소>가 초나라 무속, 특히 무가의 체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되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소>와 서사무가가 자전적 서술이라는 특징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다. 특히 서사무가가 공통적으로 타계여행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소>의 주인공 역시 천계여행을 통해서 이상의 여성을 찾아 헤매고, 마침내 곤륜산이라는 낙원을 향한 여정으로 사건의 전개가 종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서사무가와 <이소>의 구성형식과 서술양식이 서로 동일하다. 이는 서사무가의 구성형식이 開始의 奏言과 發端의 형식 그리고 終結의 형식으로 이

48) (楚地)信巫鬼, 重淫祀. (《漢書·地理志》)

49) 楚之衰也, 作爲巫音. 《呂氏春秋·侈樂篇》)

50) 張正明, 《楚辭》(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95), 339쪽.

루어지고 있는데, <이소> 역시 降神詞(서두 家世 서술부분)와 지상의 고난과 천상의 여정 그리고 亂辭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한 구성형식이 동일하다. 또한 서술양식에 있어서 서사무가와 <이소>가 공통적으로 율문, 현재형의 서술, 대화체 형식, 상투적 표현과 일률적인 어구, 반복·대구·과장의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 參考文獻 >

- 李能和, 《朝鮮巫俗考》, 啓明俱樂部, 1927.
 구영숙, 《서사무가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李豐懋, <服飾, 服食與巫俗傳說>《楚辭研究論文集》, 臺北: 學海出版社, 1981.
 金烈圭, 《韓國神話와 巫俗研究》, 一潮閣, 1982.
 趙仲邑·陸侃如 譯解, 《文心雕龍研究·解譯》, 臺北: 木鐸出版社, 1983.
 湯炳正, 《屈賦新探》, 齊南: 齊魯書社, 1984.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中國文學史編寫組, 《中國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廖序東, 《楚辭語法研究》, 北京: 語文出版社, 1995.
 張正明, 《楚辭》,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95.
 章培桓·駱玉明, 《中國文學史(上)》,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
 過常寶, 《楚辭與原始宗教》, 北京: 東方出版社, 1997.
 黃鳳顯, 《屈辭體研究》,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97.
 서대석, 《韓國巫歌의 研究》, 문학사상사, 1997.
 줄 저, 《장강을 떠도는 영혼 - 굴원평전》, 서울: 신서원, 2000.
 홍태환,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2002.

< 中文提要 >

<離騷>爲大巫屈原之作。屈原是楚國的王族, 是任過左徒之職的巫官。《漢書·地理志》記載:“(楚地)信巫鬼, 重淫祀”, 《呂氏春秋·侈樂編》記載:“楚之衰也, 作爲巫音。”<巫

音>指巫覡用來祭神靈的樂歌。楚辭乃是巫官文化的最高表現。〈離騷〉和〈九歌〉、〈九章〉是中國抒情詩的最高峰。之所以後代文人承習〈離騷〉却限于模仿，是因為〈離騷〉乃是兼備巫學和道學的屈原創作的作品。也因為如此，〈離騷〉表現出了超現實的、浪漫的世界，而且在語辭方面，武師的專用語“香草”、“美人”、“美玉”運用在象征和隱喻等修辭中。

韓國的敘事巫歌也具備故事情節，屬於敘事模式的巫歌，是巫俗祭儀中口頭傳承的巫俗神話。〈離騷〉是屈原的自傳性政治抒情詩。〈離騷〉雖是抒情詩，却具有尋求理想的人物、理想的世界的故事情節，因而也可以說它屬於敘事文學樣式。本稿以此為前提，考查了〈離騷〉中體現的敘事巫歌的特征。結果，導出結論：〈離騷〉以楚國的巫俗，尤其是巫歌的體制和內容為奠基所產生的可能性和蓋然性很充分。其原因如下：

第一，〈離騷〉和敘事巫歌一樣以自傳性的敘述為特征。況且如同敘事巫歌中普遍存在他界之行，〈離騷〉的主人公也通過游行天界尋求理想的女性。故事用主人公的旅程即最終走向叫做崑崙山的天堂來結局。

第二，敘事巫歌和〈離騷〉的結構模式以及敘述模式相似。敘事巫歌的結構由開始的奏言和發端的形式以及終結的形式組成。而〈離騷〉的結構和敘事巫歌的結構一樣有降神詞(開頭敘述家世的部分)、地上的苦難、天上的旅程以及亂辭。並且在敘述模式上講，敘事巫歌和〈離騷〉共同地運用了律文、現在時態的敘述、對話體形式、常用語詞和一貫的語句，還有反復·排比·誇張等修辭手法。

關鍵詞：離騷、敘事巫歌、巫俗祭儀、巫歌結構、敘事樣式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30	2010.1.30	2010.2.8	2010.2.8	2010.2.28

